

서울시 시민숙의예산 참여율 1% “홍보 부족에 투표과정 어려워”

시민숙의예산 투표 참여자 10만명
“사업수 많아 이해·선택 어렵다”
참여예산 홍보 인식, 부정적 55%

서울시가 재정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도입한 시민숙의예산의 시민투표 참여율이 1%로 낮아 사업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민숙의예산(제안형)의 시민투표 참여자 수는 2018년 11만9170명, 2019년 15만4975명, 올해 10만24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시민의 약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시의회는 “시민 의견을 수렴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고자 시행 중인 시민투표 참여자 수가 매우 저조해 서울시민 전반에 대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낮은 참여율의 원인은 홍보 부족과 투표 과정의 어려움 등이다”고 꼬집었다.

지난 8월 3일부터 9월 4일까지 시민 1323명을 대상으로 벌인 시민참여예산(제안형) 여론조사에서 시민참여예산 홍보 정도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 부정적인 답변이 55.02%에 달했다.



2020 민관예산협의회 활동 모습(사업제안자 설명청취). /서울시

응답자들은 시민투표 시 어려운 점으로 ‘사업 수가 많아 모든 사업을 면밀히 이해하고 선택하기 어렵다’(50.42%)를 가장 많이 꼽았다. ‘투표 대상사업이 다 비슷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음’(27.29%), ‘각 사업의 제안서를 찾아보기 어려웠음’(25.24%)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2012년부터 시민참여예산제를 추진해왔다. 시민숙의예산과 시 재정에 대한 시민참여로 구성되며, 시민숙의예산은 숙의형과 제안형으로 구분된다.

제안형은 시민이 직접 신규사업을 제안·심사·선정해 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숙의형은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기획·편성한 기존 계속사업의 예산 과정에 다양한 주체의 시민이 참여해 숙의와 공론 과정을 거쳐 예산을 설계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올해 전자는 700억원, 후자는 5300억원 규모로 운영된다.

시의회는 “유튜브나 대중교통 영상광고와 같이 홍보 효과가 높은 수단을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오늘부터 ‘천만시민 긴급 멈춤기간’

서울시 관내 10대 시설, 정밀 방역

서울시는 23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최대 고비로 보고 24일부터 연말까지를 ‘천만 시민 긴급 멈춤기간’으로 선포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시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와 함께 관내 10대 시설에 대한 ‘서울형 정밀 방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시는 시민들의 연말 모임 자체와 이동 최소화를 위해 밤 10시 이후 대중교통 운영을 감축하기로 했다. 시내버스는 24일부터, 지하철은 추

분한 안내 후 27일부터 운행 횟수를 각각 20%씩 줄인다. 향후 비상 상황이 지속되면 지하철 막차 시간도 자정에서 밤 11시로 단축할 계획이다.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집회도 24일 0시부터 추후 별도로 공표할 때까지 전면 금지한다.

수능은 물론 전국적인 이동이 이뤄지는 대학별 논술·면접시험 대비 특별대책으로는 시교육청·자치구가 함께하는 합동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단계별 특별 집중방역을 벌이기로 했다.

수능 1주일 전부터 수험생방문이 잦은 음식점·카페 등 중점관리 시설을 방역하고, 입시학원 전체와 교습소 1800곳을 철저히 점검한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저공해 미조차 5등급 차 운행제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시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시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고 23일 밝혔다.

저공해 미조차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다.

소방차·구급차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소

유한 차량도 단속되지 않는다. 장치장착이 불가한 일반 차량은 올 연말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운행제한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별도로 단속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계절관리제와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모두 위반 시 각각 10만원이 부과된다. 1일 1회 부과되며 다른 날 추가위반 시 반복 단속된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365일 시행되며 진입기준으로 적발된다. /김현정 기자

장기간 미사용물건, 지하철역에 맡긴다

서울교통공사 ‘또타스토리’ 선배 전용 앱서 원스톱으로 이용 가능
답십리·이수·가락시장역 우선 운영

캠핑·스키용품처럼 당장 사용하지 않는 물건부터 소형가구나 원룸 이삿짐까지 기간 제한 없이 보관할 수 있는 ‘개인 창고’가 서울 지하철역에 생긴다.

서울교통공사는 ‘또타스토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하철역사 내 공실 상가나 유휴 공간을 창고로 만들어 시민이 중·장기간 물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개인창고(셀프-스토리지)로 대어해주는 것이다.

1인·4인 가구(20~39세) 주거 비율이 높아 이용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3개 역사 ▲답십리역(5호선) ▲이수역(4·7호선) ▲가락시장역(3·8호선)에서 우선 운영한다.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100%



답십리역 또타스토리. /서울교통공사

비대면으로 서울지하철 무인물품보관함 전용 앱인 ‘T-locker 또타라커’에서 창고 접수부터 결제, 출입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다.

앱에서 원하는 역사·창고·이용기간을 각각 선택한 후 요금을 결제하고, 사용자 인증을 거쳐 출입 허가를 받으면 된다. 서울지하철이 운영되는 시간(오전 5시부터 오후 12시까지)에 쓸 수 있다. /김현정 기자

개인창고는 캐비닛형, 립형 두 가지다. 캐비닛형(월 7만9000원)은 우체국 5호박스(가로 48cm×세로 38cm×높이 34cm)가 10개 정도 들어가는 크기이다. 가구 없는 원룸 이삿짐, 취미용품, 수집품 보관에 적합하다. 립형(월 13만1000원)은 우체국 5호박스 35~45개 정도가 들어가며, 소형가구나 원룸 이삿짐을 둘 때 이용하면 된다.

김포시, 신보와 ‘매출채권보험 업무협약’

중소기업 연쇄도산 예방총력

김포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외상 거래 후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기업들의 연쇄 도산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일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은 1997년 IMF 경제위기 당시 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어음보험으로 시작한 공적 보험으로 현재까지 24만 개 업체, 180조 원의 규모로 운용되고 있다.



김포시가 지난 20일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포(경기)=안성기 기자

보험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매출액 30억 원 미만의 김포시 소재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시는 보험료의 70%를, 신용보증기금은 보험료율 10%를 우대해 지원한다. /김포(경기)=안성기 기자

경기도, FTA 농가 폐업에 478억 지원

현장조사 통해 94개 농가 선정

경기도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도내 양돈농가에 폐업지원금 477억71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폐업지원금은 재배·사육 등을 계속할 수 없어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보상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돼지고

기를 FTA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고시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 7~9월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도내 양돈농가 중 각 시군의 서면 및 현장조사를 통해 선정된 94개 농가다.

이들 농가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돼지고기 수입량이 증가, 돼지고기 가격 하락 등의 피해를 입거나 지난해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으

로 더 이상의 양돈업 영위가 어려운 곳들이다.

해당농가는 ‘출하 마리수×마리당 3년 평균 순수익액×3년’을 기준으로 폐업보상을 받게 되며, 폐업보상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축사 내 분뇨제거, 퇴·액비장 청소·세척·소독 등 방역 조치 사항을 이행해야 수령 가능하다.

폐업지원금 지급일 기준으로 폐업 조치되며, 축산법상 지원대상 품목 및 축사에 대한 등록·허가 사항이 말소된다. /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오늘의 날씨

11월 24일 (화)

음력 : 10월 10일

수도권 날씨

0 ~ 8°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해돋이 07:21 | 해질 17:16

연천 -5/7, 동두천 -4/8, 가평 -5/8, 양평 -3/8, 용인 1/7, 평택 -3/8, 수원 1/7, 인천 1/7, 파주 -6/7, 서울 0/8, 백령도 5/9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